

노희용 재선가도, '安 신당' 후보들 거센 도전

■ 이슈&변수

구도심 재생·야전당 콘텐츠 개발 쟁점 안신당 후보 많아 경선 불협화음 우려

광주 동구청장

차기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의 노희용(51) 청장의 재선 도전이 '안철수 신당' 측 후보들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며 광주에서도 상당히 보수적 정치성향이 강한 광주 동구에서 '안철수 신당' 깃발을 내세우고 나서려는 후보들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 노희용 청장이 재선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짧은 재임 기간이지만, 현직 밀착형 구성 활동과 민주적 리더십으로 조직 및 주민들과의 소통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를 거쳐 지방고등고사로 공직을 시작한 노희용은 광주시청 재직 시절 사회복지과장, 광주시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을 두루 거치며 '사회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3선의 조영복(64) 전 동구의회 의장도 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중이

다. 동구의회 의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조 전 의장은 그동안 뛰어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중·소 모임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조 전 의장은 동구에서 가장 오래 민주당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지세를 다져가고 있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으로 선임된 오형근(51) 성형외과 원장과 임택(50) 전 동구의원

오형근·임택 신당 후보 나설 가능성

양혜령·손재홍 무소속 신당 저울질

이 후보로 나설 공산이 크다. 여기에 양혜령(51) 전 광주시의원이 '안철수 신당' 측을 택할지, 무소속으로 나설지 여부에 따라 사실상 '신당'의 내부 경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양 전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노청장과 한차례 맞붙어 33.29%의 득표

■ 광주 동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정당	민주당	무소속	통합진보당	무소속	안철수 신당	안철수 신당	민주당
이름(나이)	노희용(51)	손재홍(53)	안병강(51)	양혜령(51)	오형근(51)	임택(50)	조영복(64)
주요경력	동구청장 전·광주시 문화관광 정책실장	광주 시의원(3선)	동구의원 통합진보당 동구 지역위원장	·백화포럼 공동대표 ·전·광주시의원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성형외과 원장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전·동구의원(3선)	전·동구의회 의장 동구의원(3선)

※ 후보는 가나다 순

보궐선거 패배한 뒤 '와신상담'하며 지역구 활동 보복을 넓히고 있다.

양 전 의원은 현재 지역공동체 '백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 봉사 활동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동구에서 3선 시의원을 지낸 손 의원은 지난해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반발, 탈당한 뒤 안철수 지지단체인 광주전남 진심포럼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어 향후 신당 후보 경선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손 의원은 향후 정치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가능하면 신당 쪽이던 무소속

속이던 출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손 의원은 동구에서만 내리 3선을 한 만큼 지역 내 조직력이 강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안철수 의원 측의 정책네트워크 1차 실행위원으로 선임된 임택 전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위원장도 최근 구청장 출마 의지를 굳히고 조직 정비 등에 나서고 있다.

임 전 위원장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 후보로 출마해 33.27%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유태명 전 청장(51.07%)에게 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항상 '구도심 재생'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연계 콘텐츠 개발' 등이 쟁점이 되어왔다. 내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이 두 문제가 후보들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동구에서 가장 시급하고 지역 최대 현안이기에 때문이다.

특히 선거 다음해인 2015년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는 만큼 전당과 연계된 동구 발전 문제가 내년 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후보들도 이러한 부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주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노희용 현 동구청장의 경우도 짧은 재임기간 동안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력하며 더 나은 공약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안철수 신당' 바람이다. 동구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다 광주의

다른 저층구에 비해 보수적 정치성향이 강해 그동안 대부분 조직 선거가 이뤄졌다.

따라서 '안풍'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에 따라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노희용 구청장과의 한판 승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외로 '안철수 신당'을 희망하는 후보가 많아 내부 경선 등 후보 선결과전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후보들 간 '자중지란'으로 인해 '자멸'할 수 있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

또한, 손재홍 광주시의원과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이 현재 신당 쪽 표를 고려하고 있지만, 경선을 등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자칫 민주당 vs 신당 vs 무소속의 '3파전'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관료출신이나 '安 신당' 정치인이나

■ 이슈&변수

상무소각장 이전 문제 '뜨거운 감자' 반민주당 정서 강해 신당 열풍 불까

광주 서구청장

내년 광주 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후보들의 한판 대결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60대의 관료 출신이 후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안철수 신당'은 50대의 정치인들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김종식(65) 현 서구청장과 서구를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우진(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당내 경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청장은 민선 3기 서구청장을 지낸 만큼 상당한 50대 이상의 노·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주민편의시설 확대 등의 내실 있는 구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의원들을 상대로 한 '박 과문'과 최근에는 구청 일정을 '말과 과일'과 최근에는 구청 일정을 민주당 구청장에게 미루고 휴가를 낸 뒤 관내 농협 조합원 600여명이 참석한 야유회에 참석하는 등 '불출행동'으로 입살에 올랐다. 이로 인해 당내 여론

및 지지기반 약화와 함께 상대 후보들의 공격 등이 내년 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우진 서구 지역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서구청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상 구청장 출마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청장과 임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서구를 지역위원장 선거에서 한 차례 맞붙은 경험이 있다. 당시 지

김종식·임우진 민주 경선 치열 전망

이춘문·신현구·김보현 등 출마 채비

역위원장 선거에서 임 전 부시장이 승리했다.

민주당에선 영동의 전 서구위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영 전 의원은 정당공천이 폐지되지 않으면 민주당 후보 공천에 뛰어들겠다는 생각이다.

이들에 맞서 이른바 '386세대'로 분류되는 이춘문·김보현 광주시의원과 신현구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

■ 광주 서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정당	무소속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신당	안철수 신당	민주당
이름(나이)	김보현(48)	김종식(65)	신광조(56)	신현구(53)	이춘문(54)	임우진(60)
주요경력	·광주시의원 ·전·국회의원 보좌관	·서구청장 ·전·민선 3기 서구청장	·광주시 상수도 사업 본부장 ·전·서구 부구청장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광주시의원	·민주당 서구 지역위원장 ·전·광주시 행정부시장

※ 후보는 가나다 순

있는 이 의원은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풀뿌리 지방자치 경험이 풍부한데다 합리적인 성격인 탓에 지역구 내 조직도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전반이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작은 도서관 건립,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시정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중·소 모임을 중심으로 바다 마음을 갖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김 의원은 광양시장 비서실장과 영동면·조영태 전 국회의원의 국회 보좌관을 역임해 지방자치와 중앙정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해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의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현구 의원은 한화합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김대중 정부 시절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내 등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컴퓨터 분야 사업을 통해 익힌 실물경제와 경영 감각, 중앙과 지방정치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차기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서 쟁점은 '수평적 조직문화'와 상무소각장 이전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는 민선 지방자치기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고위 관료 출신들이 모두 구청장에 당선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은 고위 관료출신이 대부분이고, '안철수 신당' 측은 모두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기 구청장이 관료 출신이 이어갈지,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구청장을 배출할지 관심이 있다.

이와 함께 서구의 현안 문제인 상무소각장 이전 문제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선거변수는 광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반(反) 민주당 정서가 강한 서구에서 안철수 신당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는 것이다. 서구는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고, 젊은 층이 인구의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반 민주당 정서가

강하다. 특히 서구 읍의 경우 진보정당의 약세가 두드러져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지면서 통합진보당에 1석을 내주기도 한 곳이다.

이에 따라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 당내 경선을 통해 어떤 후보가 나서느냐에 따라 선거관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서구 지역의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와 갑과 을로 나뉘어 진보대서구 갑은 민주당 박해자 의원이, 서구 을은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자리를 하고 있어 민주당 경선에서 박 의원 입김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매가 12억(용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룸9개, 4층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 룸15개(만실) ·매가 6억3천
- (보증금 4천 월510, 용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선암동 전원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호남대학교 → 어등산골프장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소,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지 4,900㎡ 건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서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할용지라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룸

14개를 ▶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스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